



4강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요2:23-25)

표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사람들은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좇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따르는 지 아시는 분이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 “니고데모”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비어 있는 여섯 개의 돌항아리,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형식과 종교만 남은 유대교,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
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요3:1)

1.바리새인 :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빌3:6)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들, '분리된 자' 또는 '구별된 자'라는 뜻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지킴 613개의 세부조항
부활과 천사를 믿음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2.부자 : 요세푸스의 <고대사>, 요아킴 예레미아스의 책을 보면 니고데모 가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기록. 역사서에 등장할 정도의 가문에서 태어남
또 예수님 장사지낼 때 몰약과 침향 백리트라(약34k)를 드림. 이는 왕족 장례식에 사용될 정도의 많은 양이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요19:39-40)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3. **유대인의 지도자**(관원) : 관원이란 단어는 산헤드린 공회원을 지칭하는 말

산헤드린 공의회 : 유대사회의 최고 의회로,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됨. 율법에 따라 종교 재판과 입법활동. 사형 집행권이 없고,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도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음

니고데모의 뜻 “백성들을 정복한 자”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

당시 소수의 상류층들이 헬라교육을 받고, 아람어와 헬라어 이름을 동시에 가짐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4. **검손한 사람** :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이제 서른의 젊은 목수에게 '랍비'라고 부름. 결론적으로 니고데모는 부와 명예와 권력, 지성, 인품까지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밤에' 찾아왔다고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밤,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생명을 떠난 자들을 말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3:19)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요13:30)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 질문과 대답형식

A 니고데모의 말(질문)	B 예수님의 가르침(대답)
A 3:1-3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B 3:3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A 3:4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B 3:5~8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A 3:9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B 3:10~2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구원)은 할례, 제사, 율법, 금식, 선한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 '아노센($\alpha\nu\omega\theta\epsilon\nu$)' 은 '다시 한 번'(Again) 이라는 뜻과 '위로부터'(From above) : 즉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남은 하나님
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무지?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쓰였던 단어이다.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거듭난 자라고 불렀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모르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는 질문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의 답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태초에 주셨던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 물, 즉 성령으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7:38-39)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합2:14)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 두려움의 대상.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새언약에서 언급 된 물과 성령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라(겔36:24-27)

새 언약에서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물을 뿌리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할례나 안식일, 율법을 지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 속한 것을 갖고는 결코 영에 속할 수 없다.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가 가진 육의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3:8)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 소리는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람이 임의로 (자신의 뜻대로) 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의 질문 : 어찌 그러한 일(물과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유대인이라도 소용없고, 바리새인도 소용없다. 육으로 되지 않는다. 믿음에 대해 구약의 한 사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말씀하신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21:4-9)

불뱀 사건

1.원망의 이유 :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고 에둠으로 우회하게 됨

2.원망의 모습 :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죽게 하는가, 먹을 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

3.하나님의 심판 : 불뱀을 보내심

4. 모세의 기도

5.하나님의 구원 : 장대에 낚뱀을 달고 보면 살리라



거듭남의 유일한 길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뱀의 들림이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은 '인자가 들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심밖에 길이 없다.

뱀을 본 자들이 다시 산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 것처럼, 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처럼”의 의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이처럼 : 1. 매우 많이, 몹시
2. 이와 같이

독생자 : only son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유일무이한 것을 말하는 단어이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을 주셨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것은 네가 너무나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나님은 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욕망에 충실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귀한 독생자, 유일무이한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죄의 값, 사망)에 남겨주신 것이다. 사랑하기에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3:19-21)

3장의 두개의 이야기 (니고데모, 세례요한의 제자들)

A 1-9절 니고데모의 무지함

B 10-21절 예수님의 가르침

A 22-30절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무지함

B 31-36절 세례요한의 가르침



하나의 메시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례요한 제자의 질문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
이다**(요3:26)

비교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은 교만이거나 열등감이다!

세례요한의 대답

1.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다
3.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충만하다. **신랑 : 예수님, 신부 : 새 이스라엘, 신랑의 친구 :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대답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요3:30)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이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가진 것 이상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시고 자신은 사라져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서운해 하지 않는다. 자신은 조연이고 2인자라고 비참해 하지 않는다.

이 거대한 하나님 이야기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려간다는 소식은 세례요한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희소식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커지셔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한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심“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요3:31)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5-36)

두 가지 반응

32절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 예수님의 통치 밖을 사망이라 부름

33절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 통치 안을 영생
: 주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메시지 성경)

영생과 순종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